2026. 1. 26 (월)

일본은 없다? 흔들리는 신뢰 회복하기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RA 김영준
zerojoonk@meritz.co.kr

1월 FOMC 결과보다 신임 연준의장 선임이 더 중요할 것

미국채10년 4.3%와 미국채30년 4.9%를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채권시장 긴장고조.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분쟁 유발로 인한 미국채 매도 우려와 일본 확대재정 우려에 따른 금리 급등은 글로벌 채권시장 충격 확산. 이후 트럼프 TACO와 일본 재무성의 수습으로 글로벌 채권시장 긴장감 완화

1월 FOMC는 눈에 띌만한 이슈가 부재.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으로 당분간 연준의 통화정책은 현 중립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 회의 자체보다 향후 연준의장 선임관련 급부상한 릭라이더 블랙락 CIO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 릭라이더가 연준의장에 선임되면, 비교적 합리적 인사로 평가될 것

일본금리 급등, 취약한 국내 채권시장이 참고할 함의

한국과 일본 금융시장은 실질적 교류(주식&채권)가 크지 않지만, 수출성장 주도국이라는 특성으로 환율의 상관관계 정도는 인정. 그렇지만 지난 주 일본금리 급등과정에서 국내 추경관련 노이즈까지 더해졌다고 하나 국내 채권시장 민감도 높아진 것을 확인. 매수재료 부재상황에서 악재에 민감한 상황 이어짐

투자자들은 국내 금리인상까지는 쉽지 않다고 인정해도 당장 채권매수 재료가 부재하다는 점 주목. 연초 캐리추구 크레딧 투자마저 흔들리고 있어 부담. 우리는 현 국고3년 3.1%와 국고10년 3.6% 내외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수영역으로 평가하나, 공급부담(생산적 금융) 해소까지 매수는 서두르지 않을 것 권고

Chart of the Week: 원화와 엔화 동조, 일본 시장금리 충격마저 일본과 유사성 보여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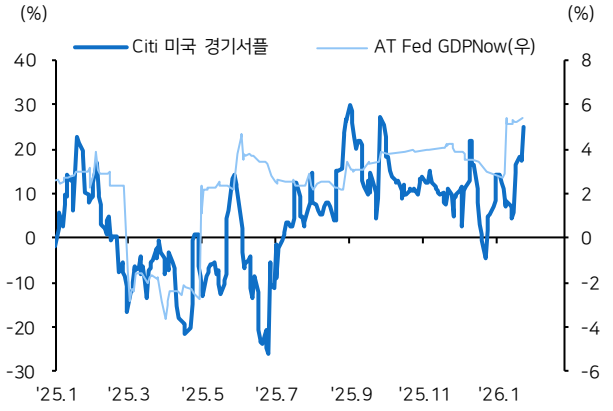
1월 FOMC 결과보다 신임 연준의장 선임이 더 중요할 것

- 미국 외형적 양호한 경기흐름 지속. 4분기 미국 성장률 5%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3분기 잠정치 전기비연율 4.4%로 추가 개선. 경기모멘텀 지표인 서플지수 트럼프 취임 이후 높은 수준인 20pt를 넘어섬〈그림 1〉

- 주간실업수당청구 등 고용지표의 추가 위축 제한, 고용없는 성장기대 증가. 그럼에도 주택관련 12월 미결주택(pending) 매매가 전월대비 -9%대로 부진〈그림 2〉. 12월 일시적 반등했다고 하나 헤비트럭 판매 감안 소비탄력 둔화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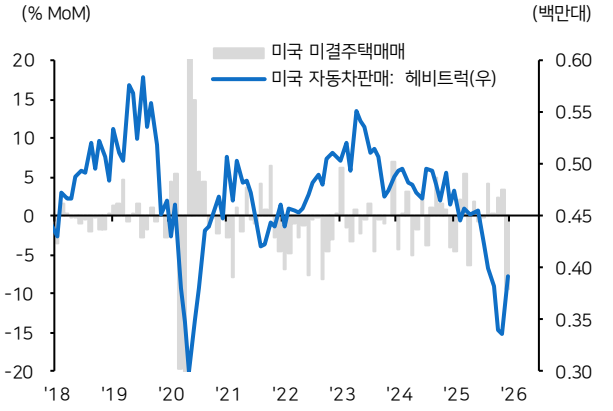
- (귀)금속중심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BEI가 오르는 등 기대인플레 통제 필요한 상황이나 임금을 중심으로 기업 비용증가 부담은 둔화〈그림 3, 4〉. 애틀란타 연준이 집계하는 Business Inflation이 공급망 충격 이후 다시 바닥권으로 회귀 중

그림1 **트럼프 취임 후 미국경제 모멘텀과 성장률 가장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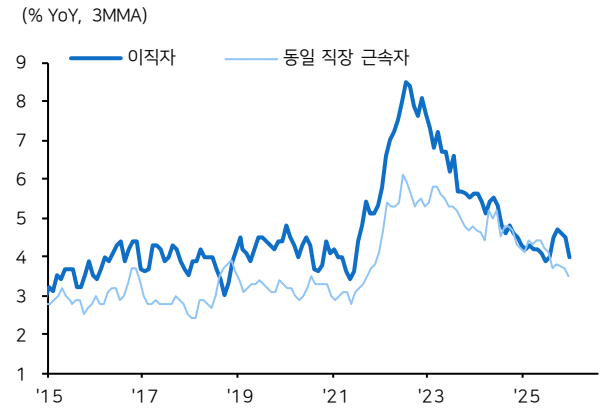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미국 미결주택 급락 vs 헤비트럭 위축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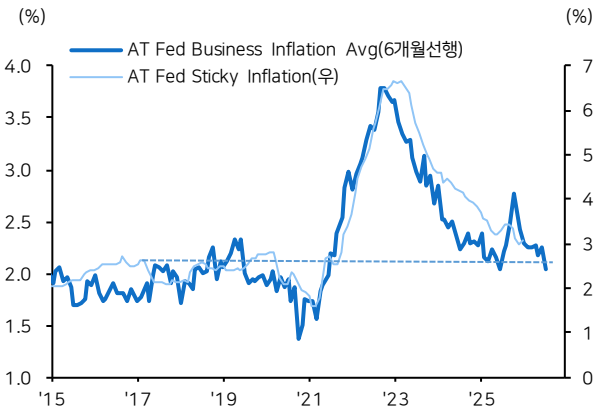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임금은 그래도 오르지 않고 있어 추세 물가 우려 완화**



자료: AT Fed Wage Track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활동 물가 안정기조 역시 인플레 우려 덜어내**



자료: AT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무역수지 개선은 수출이 증가했다고 집계되었으나 상당부분 금(gold)이 차지. 실질적 미국 일평균 교역량은 지난해 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외형적 양호한 미국경제에 점검해야 할 요인으로 부상

- 미국 인플레이션 모멘텀 지표와 상관관계가 높은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요견인 인플레 압력 높지 않은 것 증명〈그림 6〉.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벌크운임은 최근 반등세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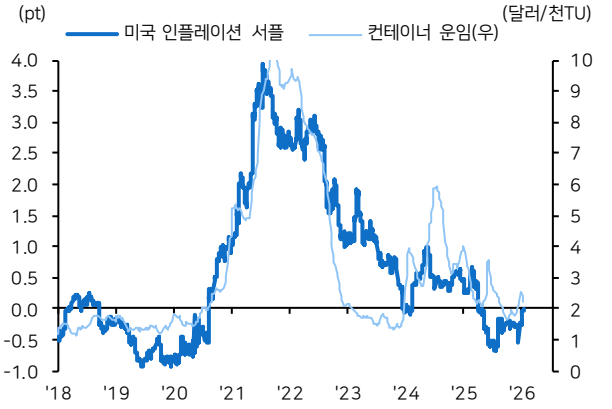
- 관세발 수요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 먼로주의(고립주의)'의 일환으로 베네주엘라에 이어 그린란드까지 분쟁을 유발하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확산

- 그린란드 점령 유럽국가들에 관세부과 및 무력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가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TACO(always chicken out) 다시 없던 일로 회귀. 미국채관련 유럽국가들의 매도 가능성 역시 부담으로 작동〈그림 8〉

그림5 **미국 일간교역량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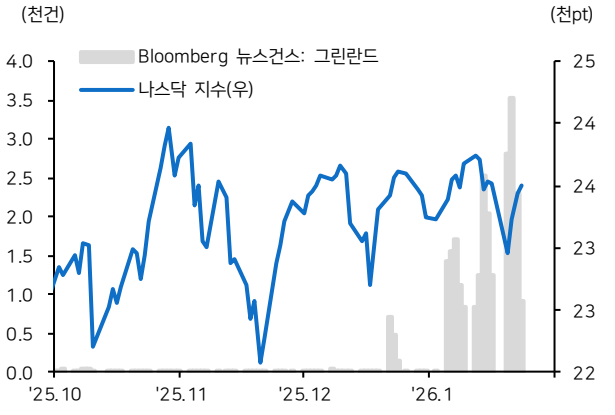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

그림6 **컨테이너 운임 낮게 유지, 인플레 안정에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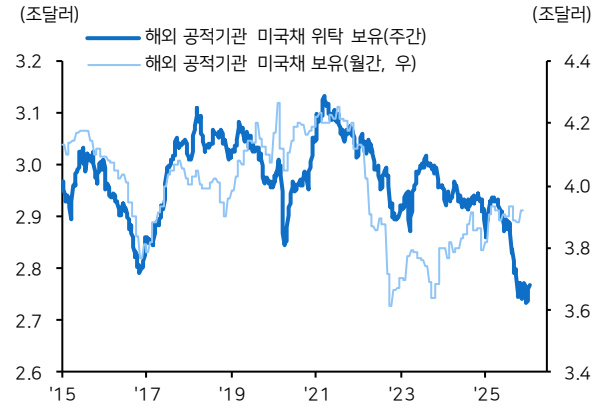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트럼프 그린란드 분쟁, 주가하락으로 한발 물러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공적기관들의 미국채 매도, 지난해 3~4분기 집중**



자료: US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외형적 양호한 경제를 기반으로 트럼프가 외교정책에서 강공을 보였으나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충격을 확인한 이후 신중한 입장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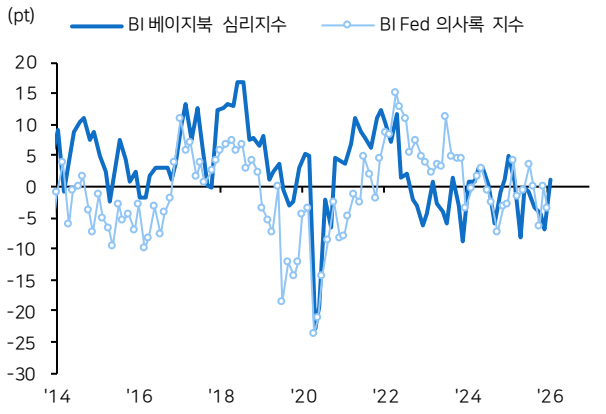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쉽사리 포기하지 않겠지만, 당장 연준이 양호한 경기여건 기반 금리인하를 실시하지 않는 부분부터 고민일 것〈그림 9〉

- 파월 검찰압수수색 이후 연준인사들의 발언 매파강도는 증가하는 상황〈그림 10〉. 작년 12월 인하 단행 이후 현재 경기와 물가는 금리인하를 서둘지 않게 할 수준 + 트럼프 정치적 압박에 따른 반작용까지 더해진 상황

- 당장 이번 주 28일(수) 예정된 1월 FOMC는 동결 확률 96%로 별다른 내용이 없을 전망. 파월의장이 최근 리사 쿡 연준이사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정도로 악화된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드러낼지 정도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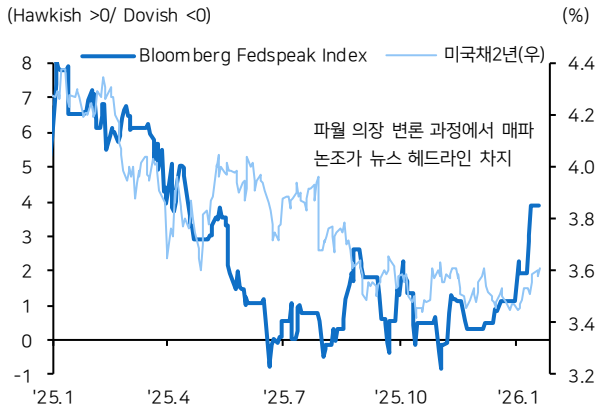
- FOMC보다는 지난주 막판 차기연준의장으로 릭 라이더 급부상이 더 관심

그림9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개선, 연준 비둘기 색채 옅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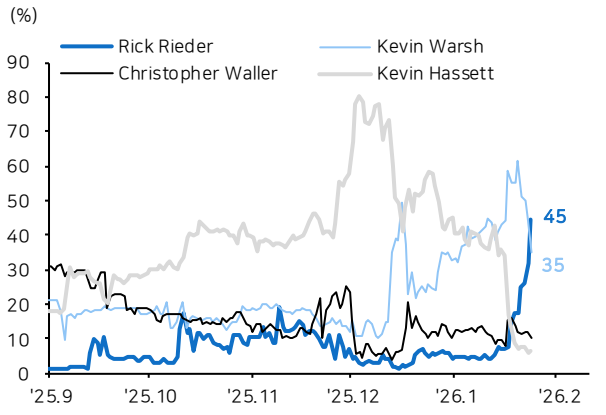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트럼프와 갈등이 심해진 파월, 연준매파성향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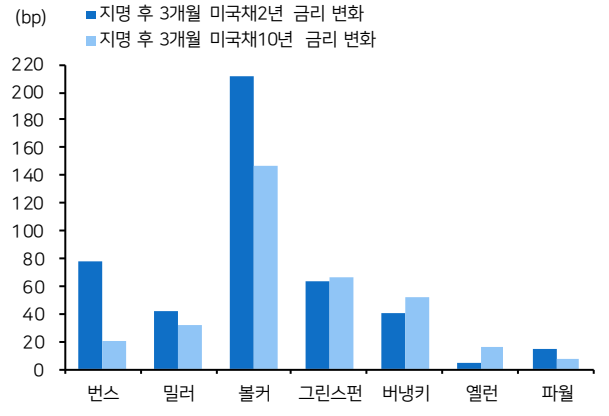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다크호스 릭 라이더, 막판 연준의장 유력주자 급부상**



자료: Kalsh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신임 연준의장 취임 시 불확실성으로 대부분 금리상승**



자료: Bloomberg, Bof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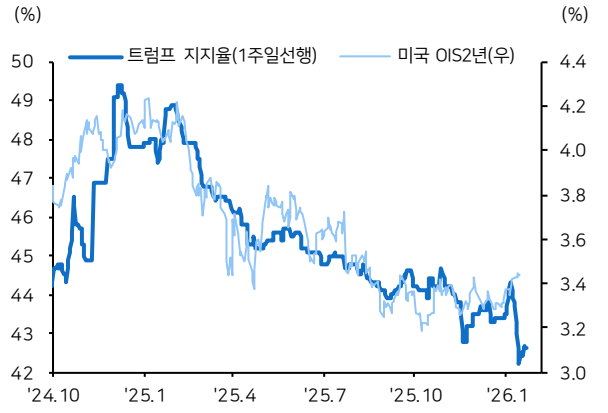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 곧 연준의장을 지명하겠다고 시사, 헤싯은 현 NEC의장에 두고 다음 주자였던 워시관련 언급 불명. 오히려 블랙락 CIO인 릭 라이더를 두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자 그의 임명 확률이 45%로 급등〈그림 11〉

- 금융위기 이전부터 블랙락에서 CIO를 역임한 릭 라이더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헤싯보다는 과도한 완화 우려 낮추는 역할. 현재 베센트 재무장관과 유사하게 정책을 균형적으로 끌고 갈 것으로 기대

- 일반적 연준의장 교체기가 어려운 경제여건 해소 이후가 많았고, 차기의장 성향 불확실성으로 지명 및 취임초기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 다수〈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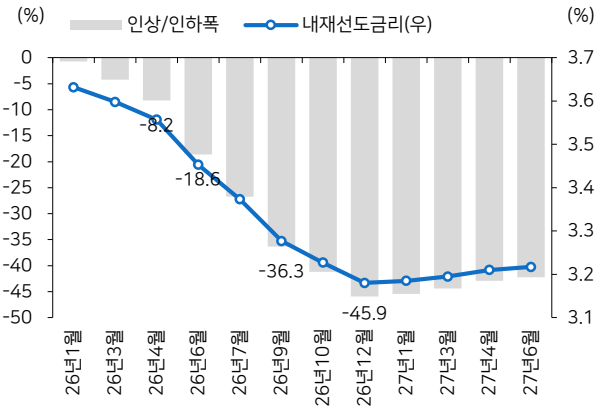
- 현재 위축된 트럼프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릭 라이더는 트럼프 거수기 수준은 아닐 것이나 시장금리 상승 충격을 유발할 인물은 아닐 것. 현재 6월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연내 터미널 레이트 3.25% 정도는 맞춰줄 전망

그림13 **트럼프 지지율 위축세, 연준마저 도와주지 않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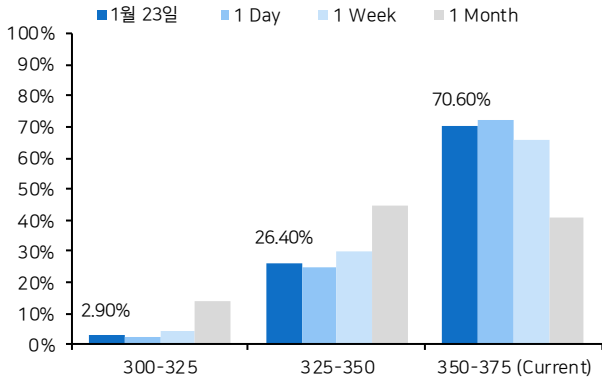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6월 인하기대 축소, 연내 2번은 낮출 수 있을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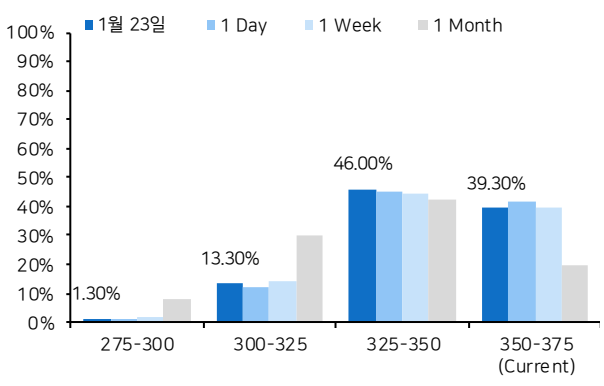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4월 FOMC: 파월 퇴임 전까지 인하가 쉽지 않을 듯**



자료: CME Fedwatch-Too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6월 FOMC: 상반기 막판 1차례 정도는 낮출 듯**



자료: CME Fedwatch-Too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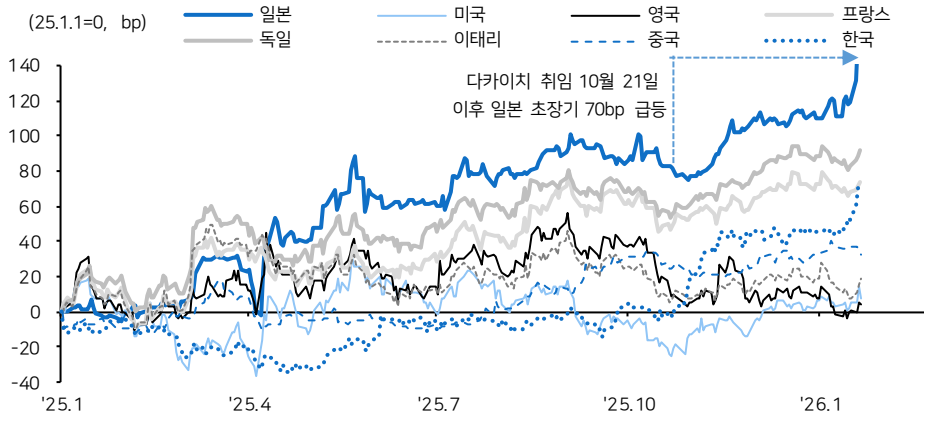
일본금리 급등, 취약한 국내 채권시장이 참고할 함의

- 지난 주 국내 채권시장은 장중 국고3년이 3.2%와 국고10년 3.6%대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4분기 기록했던 고점이 큰 폭으로 상향 돌파. 안팎으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대외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이슈가 미국채 매도관련 불안을 자극했지만, 핵심은 일본의 확장 재정에 따른 불안이 주도

- 작년 10월 21일 수립된 다카이치 내각은 확대재정을 통해 지지도를 높이고, 2월 8일 조기총선 실시. 관련 식품소비세 8%를 2년간 면제, 연 5조엔 규모의 세수 감소. 휘발유 잠정세까지 폐지 2.2조엔 세수부족 더해져 재정 악화

-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3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일본채30년 금리는 3.1%대에서 1월 20일 3.876%까지 70bp 가량 급등, 주요국 중 초장기금리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그림 17〉. 감세가 구체화된 20일 하루에만 일본채30년 금리가 27bp, 10년이 9bp 가량 급등에 글로벌 채권시장에 충격 야기

그림17 **1월 20일 일본채30년 26.6bp 급등, 다카이치 확대재정에 대한 우려감 직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10년대비 초장기 스프레드 다시 급격히 확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엔화 약세 기조, 그래도 일본 증시 상대적 선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다카이치 취임 이전에도 2025년 연간으로 일본금리가 상승세를 기록. 이를 구분해서 봐야하는 이유는 이시바 총리시기 금리상승 주도는 재정이 아닌 경기와 물가 개선이 주도했음〈그림 21〉

- 잠재성장률이 0% 후반대, 물가목표 또한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경제가 지난해 잠재성장률 상회 및 3%대 물가안정을 위해 BOJ의 매파성향을 유지. 펜데믹 당시 무리했던 재정은 2% 이내로 균형을 회복

- 지난 주 23일(금) BOJ 회의(금정위)에서는 일본의 성장률과 물가전망을 올해 다상향조정에 나서면서, 금리인상을 실시해야 할 배경을 조성〈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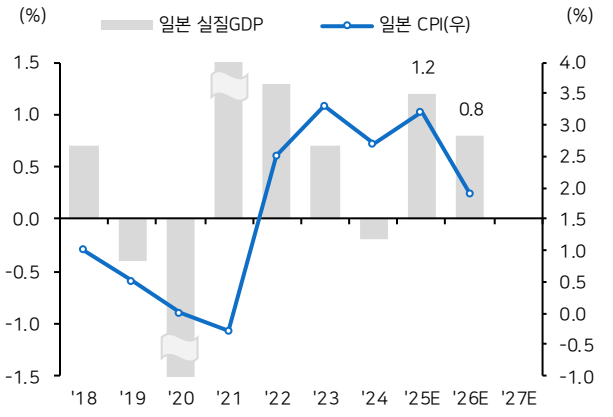
- 매크로 환경도 일본 채권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데, 일본 채권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올해 GDP의 3%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그림 22〉. 작년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사로 2026년 일본 경제활성화를 위해 20조엔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그림20 **1월 BOJ 수정경제전망, 올해 성장과 물가 공히 상향 긴축 의지 지속**

	Real GDP	CPI (all items less fresh food)	(Reference) CPI (all items less fresh food and energy)
Fiscal 2025	+0.8 to +0.9 [+0.9]	+2.7 to +2.8 [+2.7]	+2.9 to +3.1 [+3.0]
Forecasts made in October 2025	+0.6 to +0.8 [+0.7]	+2.7 to +2.9 [+2.7]	+2.8 to +3.0 [+2.8]
Fiscal 2026	+0.8 to +1.0 [+1.0]	+1.9 to +2.0 [+1.9]	+2.0 to +2.3 [+2.2]
Forecasts made in October 2025	+0.6 to +0.8 [+0.7]	+1.6 to +2.0 [+1.8]	+1.8 to +2.2 [+2.0]
Fiscal 2027	+0.8 to +1.0 [+0.8]	+1.9 to +2.2 [+2.0]	+2.0 to +2.3 [+2.1]
Forecasts made in October 2025	+0.7 to +1.1 [+1.0]	+1.8 to +2.0 [+2.0]	+2.0 to +2.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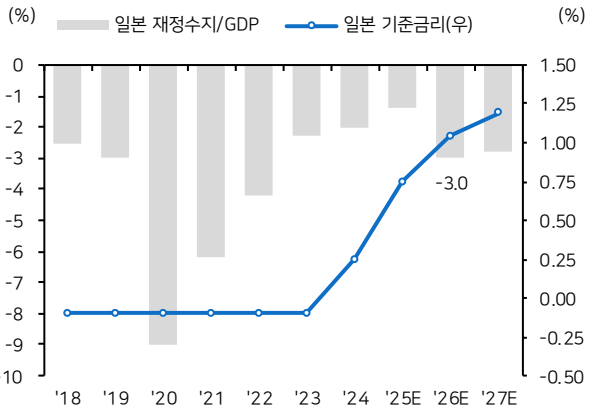
자료: BOJ

그림21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BOJ의 성장률 전망**



자료: 일본 내각부,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재정적자 GDP 3%보다 더 초과해서 지출될 우려**



자료: 일본 내각부,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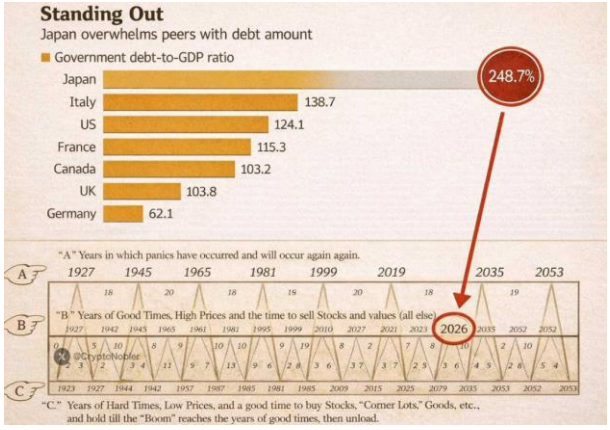
- 일본 명목GDP 2025년 650조엔 내외로 20조엔 추경 규모는 일본 GDP의 3% 정도되는 규모. 올해 일본의 적자예상 -3%대에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의 정부부채가 소득대비 전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에서 신뢰성 일부 자극

- 일본 중앙정부 예산 120조원 내외인 점을 감안해도 추경의 예산증가 압력이 16% 넘게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경기개선+BOJ 금리인상에 더해진 금리상승 압력 증대재료로 해석

- 관련 금리민감도는 IMF Working Paper 중 주요국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민감도를 산출한 보고서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그림 24, 25〉. 정부 부채의 증가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나 재정의 민감도가 단기적 영향을 좀 더 적절하게 집계. 보고서 결과는 재정적자 GDP 1%는 장기금리 20~30bp 충격〈그림 26〉

- 다카이치 취임 이후 추경 이슈로 일본채30년 금리가 70bp 가량 올라가는 경로는 재정적자의 규모 감안 시 3.7% 내외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했음

그림23 **막대한 일본부채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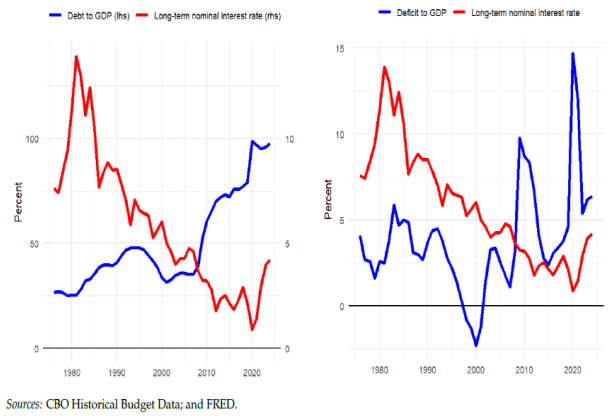


자료: X

그림24 **부채와 재정적자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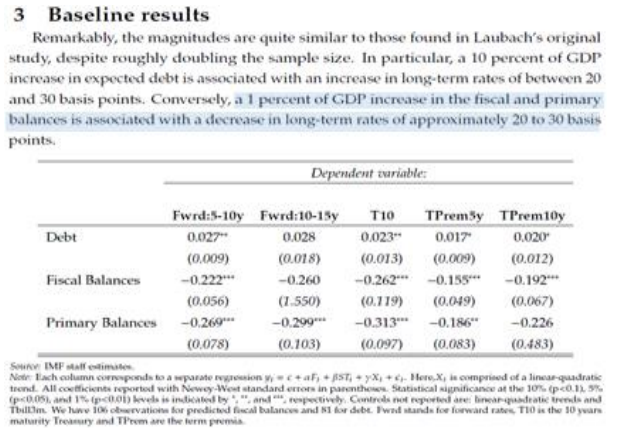
자료: IMF Working Paper

그림25 **정부부채 통제시기 하락하던 금리, 이제는 부담 영역**



자료: IMF Working Paper

그림26 **재정적자 GDP 1%는 장기금리 20~30bp 부담**



3 **Baseline results**

Remarkably, the magnitudes are quite similar to those found in Laubach's original study, despite roughly doubling the sample size. In particular, a 10 percent of GDP increase in expected debt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long-term rates of between 20 and 30 basis points. Conversely, a 1 percent of GDP increase in the fiscal and primary balances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long-term rates of approximately 20 to 30 basis points.

	Dependent variable:				
	Fwrd:5-10y	Fwrd:10-15y	T10	TPrem5y	TPrem10y
Debt	0.027**	0.028	0.023**	0.017*	0.020*
	(0.009)	(0.018)	(0.013)	(0.009)	(0.012)
Fiscal Balances	−0.222***	−0.260	−0.262***	−0.155***	−0.192***
	(0.056)	(1.550)	(0.119)	(0.049)	(0.067)
Primary Balances	−0.269***	−0.299***	−0.313***	−0.186**	−0.226
	(0.078)	(0.103)	(0.097)	(0.083)	(0.483)

Source: IMF staff estimates.

Note: Each column corresponds to a separate regression $y_t = c + \alpha F_t + \beta ST_t + \gamma X_t + \epsilon_t$. Here, X_t is comprised of a linear-quadratic trend. All coefficients reported with Newey-We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p<0.1$), 5% ($p<0.05$), and 1% ($p<0.01$) levels is indicated by *, **, and ***, respectively. Controls not reported are: linear-quadratic trends and Tbill3m. We have 106 observations for predicted fiscal balances and 81 for debt. Fwrd stands for forward rates, T10 is the 10 years maturity Treasury and TPrem are the term premia.

자료: IMF Working Paper

- 1월 20일 감세정책의 민감도로 하루 26bp 오르면서 오버슈팅한 점은 추가 확대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반영된 부분이 있었으나, 직후 일본 재무장관 구두개입 및 일본 2위권 은행(스미토모)의 매수의사 타진 등으로 3.6%대로 안정

- 과거 필자가 국내 추경관련 장기금리 민감도를 추정할 때 추경 1조당 장기금리 1bp의 가치로 평가했던 논거가 해당 논문에 준거. 한국 명목GDP는 2,500조원 내외로 대략 GDP의 1%는 20조원 내외 정도되는 추경임

- 일반적 경기위축기 국내 추경규모가 10~20조원 사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금리 민감도가 10~20bp 내외 정도로 추정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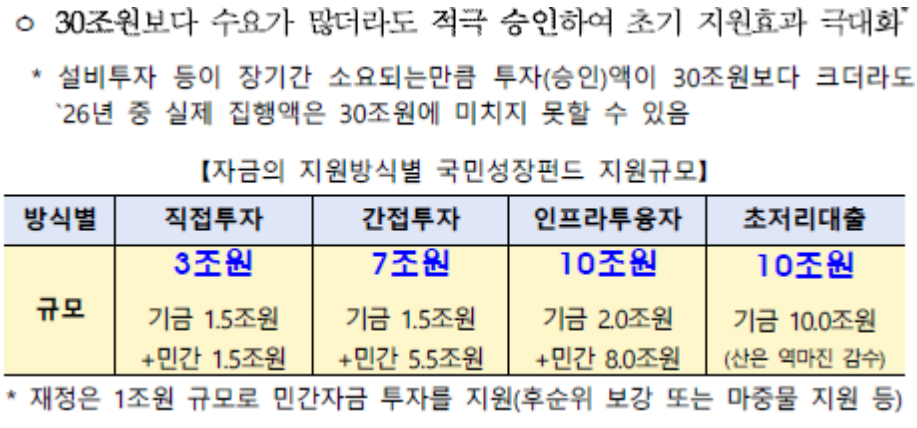
- 일본의 무리한 확대재정대비 우리는 지난해 4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여 확대재정 부담으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기대 소멸까지 더해져(25bp) 작년 하반기까지 5월 저점대비 60bp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 우리는 현재 일본 금리불안 요인으로 국내 시장금리 추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그림27 **2026년 한국 국고채 발행부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조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국고채 총발행	101.1	100.8	97.4	101.7	174.5	180.5	168.6	165.7	158.4	226.2	225.7	223.0	215.0	180.0
(국고채 순증)	31.8	29.8	20.3	44.5	115.3	120.6	97.3	61.5	49.9	112.2	109.4	118.0	125.0	110.0
(국고채 차환)	69.3	71.0	77.1	57.2	59.2	59.9	71.4	104.2	108.5	113.9	116.2	105.0	90.0	70.0
재정지출	342.6	363.7	389.6	436.7	490.0	538.0	623	559.7	580.1	703.3	728.0	764.4	802.6	834.7
재정수입	371.3	403.8	438.3	443.9	446.6	537.6	588.3	543.6	560.1	642.4	674.2	705	733.7	771.1
통합재정수지	16.9	24.0	31.2	-12	-71.2	-30.5	-64.6	-36.8	-43.5	-60.9	-53.8	-59.4	-68.9	-63.6
통합재정수지 (% of GDP)	0.9	1.2	1.6	-0.6	-3.5	-1.4	-2.8	-1.5	-1.7	-2.3	-2.0	-2.1	-2.3	-2.1
국가채무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4	1,126.8	1,175.2	1,301.9	1,415.2	1,532.5	1,664.3	1,788.9
국가채무 (% of GDP)	34.2	34.1	33.9	35.4	41.1	43.7	45.9	46.8	46	49.1	51.6	53.8	56.2	58.0
명목GDP	1,833.0	1,934.2	2,007.0	2,040.6	2,058.5	2,221.9	2,323.8	2,408.7	2,556.9	2,651.5	2,742.6	2,848.5	2,961.4	3,084.3

자료: 기획재정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8 **정부 예산에서 국고채 발행보다 생산적 금융측면에서 공급부담 해소 필요**



○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하여 초기 지원효과 극대화

* 설비투자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만큼 투자(승인)액이 30조원보다 크더라도 '26년 중 실제 집행액은 30조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자금의 지원방식별 국민성장펀드 지원규모】

방식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	3조원 기금 1.5조원 +민간 1.5조원	7조원 기금 1.5조원 +민간 5.5조원	10조원 기금 2.0조원 +민간 8.0조원	10조원 기금 10.0조원 (산은 역마진 감수)

* 재정은 1조원 규모로 민간자금 투자를 지원(후순위 보강 또는 마중물 지원 등)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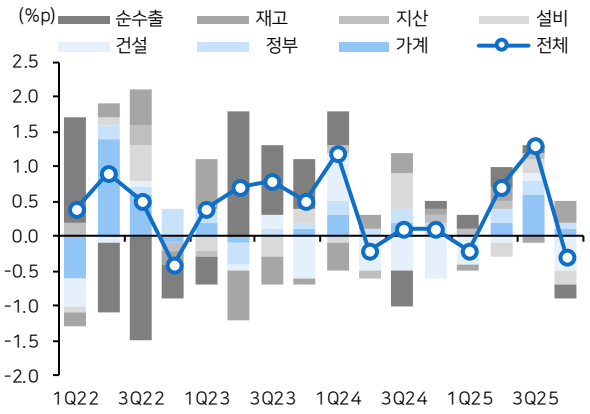
-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일부 국민성장펀드의 준예산성 정책이 30조원 정도 유입, 이를 감안 현재 연초대비 국고금리가 30bp 가량 상승한 수준에서는 수급부담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평가

- 당장 국내외 채권시장 재료가 매수에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은 부담이나, 경기개선 및 환율+부동산 불안, 일부 대내외 재정악재까지 반영한 금리가 현 국고 수준이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

- 작년 4분기 성장률의 경우 예상보다 부진한 투자(건설+설비) 및 순수출 감소로 인해 QoQ -0.3%로 시장 컨센서스 0.2를 크게 하회〈그림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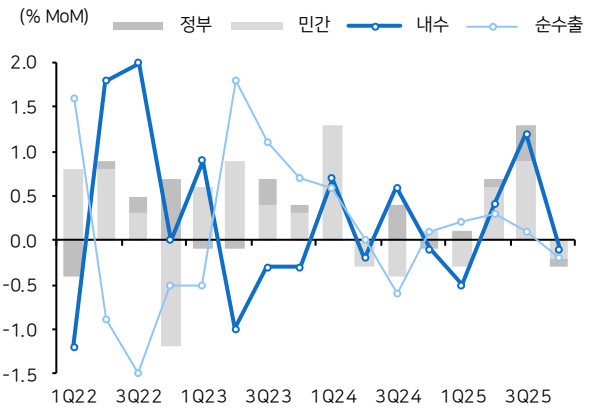
- 경기순환시계 기준 아직 국내경기 개선 과정에서 내수중심 미진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으나〈그림 31〉, 개선되는 심리를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 2%대 위협할 정도 아님. 당사는 2.2% 전망치를 2.1%로 소폭 하향했으나 긍정적 흐름은 인정

그림29 **작년 4분기 -0.3% 역성장, 지속될 가능성 높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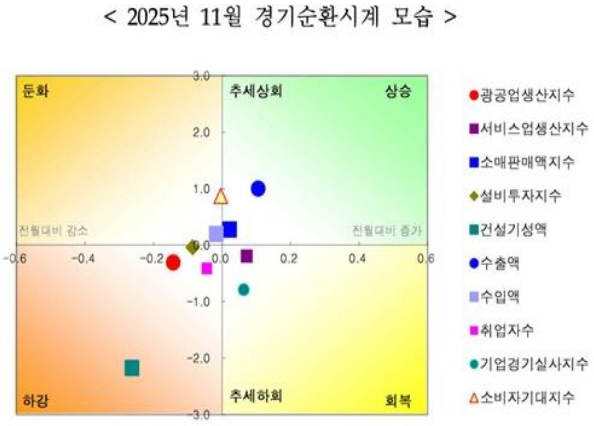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3분기 정책 집중의 반작용, 4분기 모든 부문에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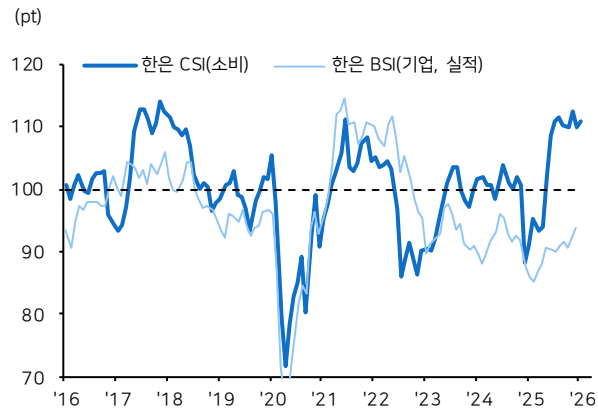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11월까지 내수중심 국내경기 전환 시간 좀 더 필요**



자료: 국가데이터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심리지표 개선 기반 올해 연간 2.1% 성장 가능**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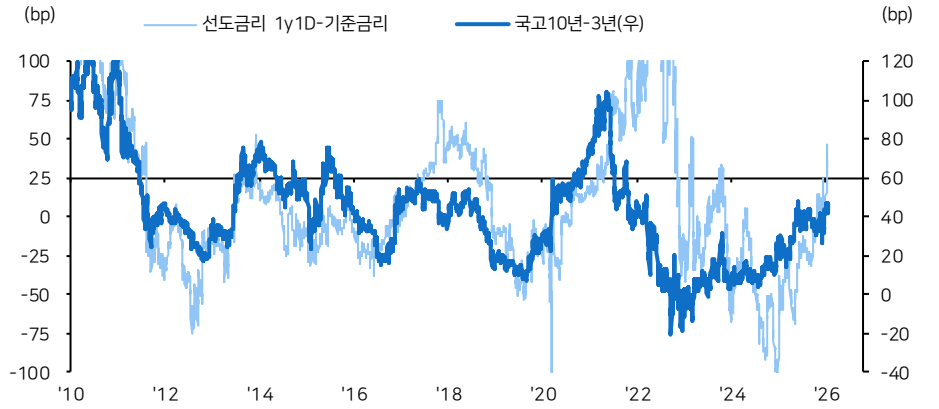
- 이를 종합할 때 현재 국고3년 3.1%와 국고10년 3.6% 내외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판단. 그럼에도 다수 투자자들이 작년 연말 이후 캐리투자를 감안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1월에만 30bp 가량의 금리상승 충격에 추가대응 어려운 상황

- 그렇지만 현재 선도금리반영 1년 이내 2차례 인상까지 감안한 레벨은 저평가 구간은 분명〈그림 33〉. 실제 장단기금리차가 선도금리대비 10-3년 50bp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것은 연내 실제 인상 단행 가능성을 높지 않게 평가하는 것

- 매수재료 부재 속 당분간 시장금리 반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연초 크레딧 중심 다시 균열이 생긴 절대금리 투자는 유효〈그림 34, 35〉. 올해 경기개선 국면에서 크레딧의 추가 약세 심화 가능성 낮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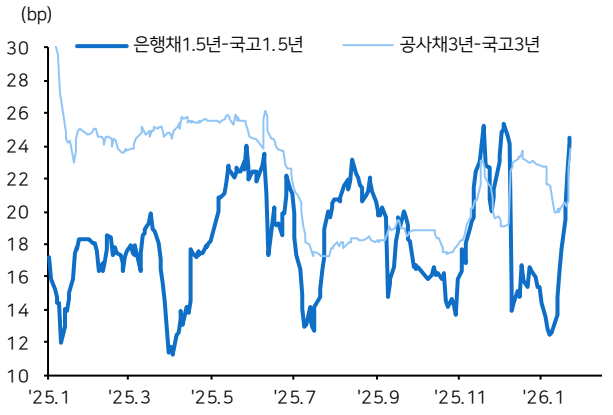
- 연초 생산적 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채와 회사채는 높아진 금리 및 정부정책 지원 등을 고려하면서 발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부보증채 발행 이후부터 크레딧 시장 수급부담 본격적 완화

그림33 **선도금리 반영 금리인상 기대 대비 장단기금리차 좀 더 보수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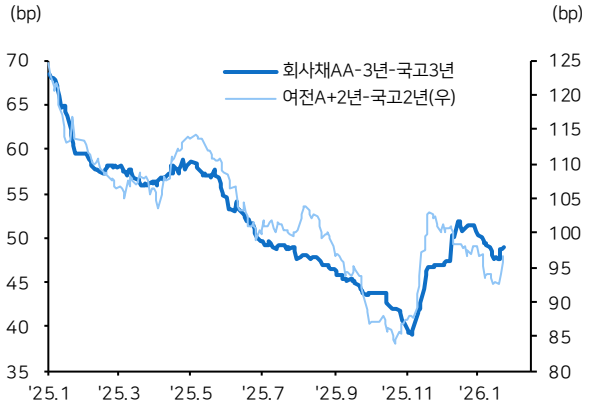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단기은행채 중심 캐리목적 투자 크게 훼손**



자료: 민평 3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회사채와 여전채 역시 캐리 수요 주춤 눈치보기**



자료: 민평 3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이벤트 및 평가(1월 26일 주간)

- 1월 FOMC 대기. 경제활동에 대한 성명문 표현 교체 여부 및 동결 지속기간에 대한 단서 중요. 이외 기자회견 시 독립성 관련 발언 여부에 주목. 만일 금리결정 표결에서 참가자들의 단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여지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직전치	코멘트
1월 26일	미국	11월 내구재 주문	★	-2.2% MoM	항공기 주문 급증과 기업의 견조한 설비투자(AI 관련) 흐름이 지표 호조로 이어질 개연성 존재
1월 27일	미국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	★★	-10.9	미국 내 gdp 순위 2위인 택사스 제조업 경기 5개월 연속 위축 기록 중. 택사스 산업구조 특성상 에너지 섹터 영향력이 커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예상
1월 27일	미국	11월 S&P 케이스 쉴러	★	1.31%	주택재고 쌓여있는 만큼 가격 상승률 높지 않을 전망
1월 28일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지신뢰지수	★★	89.1	노동시장 여건 제약적인데다 고용 창출이 둔화되어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 만일 상승할 경우 늘어난 세금 환급액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
1월 29일	미국	FOMC 금리결정	★★★	3.75%	노동시장의 큰 폭 악화 없다면 1분기에는 동결 기조를 이어 갈 것. 경제활동, 실업률 등에 대한 성명문 표현 수정 여부 확인. 다만 FOMC 금리결정 보다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중요하다는 의견
1월 29일	캐나다	BOC 금리결정	★★★	2.25%	동결 예상. 관망 기조가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맥클렘 총재의 기존 의견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1월 29일	한국	2월 국고채 발행계획	★★	16.0조원	1월 총 발행규모와 연간 계획에서 제시해준 발행비중(1분기 27%~30%) 감안시 19~20조원 예상. 금리 불안 요소가 많은 탓에 경쟁입찰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기 어려운 여건
1월 30일	미국	12월 헤드라인 PPI	★★	0.2% MoM/ 3.0% YoY	미국 기업 비용증가 부담 완화. PMI 가격지표는 직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포트폴리오 운용 수수료 등 근원 PCE에 반영되는 항목 위주로 점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